

지역 소식통

제1회 김제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선정

김제시의 문화관광자원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개발하고자 마련한 '2020년 제1회 김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 심사'에서 △응기로 만든 반상기 세트인 '행복한 밥상' (2작품) △전통 한지로 김제시 캐릭터 지팡이를 표현한 '허수아비 오르골' △김제 하소백련지의 연잎을 형상화한 '연잎차잔세트' △쌀, 연꽃 등 김제산성물을 적용한 용기합 등 5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이 담긴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 기간 총 36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교수, 행정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총합적으로 출품된 작품을 평가한 결과, 총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인 작품 5점을 선정작으로 결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단위 농촌 관광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0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지평선 논두렁놀투렁! 김제농촌체험여행'이 지난 27일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지역단위 농촌관광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김제시를 포함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을 통해 김제시는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 고유의 농촌자원과 일반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여 농촌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존 농촌관광의 한계를 극복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촌체험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지역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과 운영, 홍보 등을 위해 3년간 3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규모 일자리 쏟아진다”

완주군, 5년간 300억으로 30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선정 쾌거

완주군이 향후 5년간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8일 완주군은 지난 27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김제시장 등 사업수행기관의 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완주군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00억원 규모로 지역의 경제·산업과 고용 부인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본보 4월 28일자 1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 우려지역이 미리 대비해 지역의 경제·산업과 연계한 종합적 일자리를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 최초로 공



모한 대규모 일자리 공모사업이다.

전국에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19개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완주군은 지난해 9월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6개월 동안 준비해 최종 선정되

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긴밀히 연결해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신산업인 수소산업 등의 기업 유치,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5개 분야 12개 과제를 300억 규모로 추진해 일자리 3000개를 창출 계획이다.

각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총괄사무국을 두고 각 시·군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일자리 센터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완주군은 3억씩(2020년 2억) 5년간 15억을 부담해 '더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에 활용한다.

주로 기업 근로자의 교통, 주거, 학자금 등 지원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가 28일 2020년 김제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제시,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 신속히 추진할 것"

김제시가 28일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제 분야 민간 전문가, 지역 유관단체 대표 및 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관계부서 국·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2020년 김제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관부서 경제진흥과장의 '코로나 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5개 분야 29개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들의 회의가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피해업종·분야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긴급 경영

지원 시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증빙 지원 방안,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원사업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정책 등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편 경제도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세계적 팬데믹(대유행)인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전례 없는 심각한 비상사태를 맞고 있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28일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열어 가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7대 분야 84개사업(10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민선7기 공약사업 중 ▲김제 경제도약 조례제정 ▲김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개방 ▲KTX 김제역 정차 추진 ▲교통 불편문제 해소로 교통편의 증진(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등 7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김제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완료된 7개 사업과 현재 정상추진 중인 97개를 포함하여 세부사업 107개 중 104개의 사업이(97.2%) 순조롭게 이행 중이며 나머지 이행이 부진한 3건의 사업 또한 정확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 실행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제시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공약사업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분기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지만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모든 공약사업이 임기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호평'

일주일간 90% 지급률 기록

타 지자체 문의 쇄도

완주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28일 완주군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집중 지급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지급처와 지급방식을 달리해 90%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군은 집중기간 동안 21개소의 지급처를 운영하고 인구가 적은 소규모 마을의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부했다.

또한 인구가 많은 봉동읍과 이서면의 경우에는 각각 4개소, 3개소의 지급처를 확대 운영해 주민들을 분산시켰다.



특히,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 것이 주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가구별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고,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세대원 뭉까지 지급하면서 빠르게 진행했다.

사전에 주민들이 지급처를 찾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아파트 안내방송, 플래카드, 이장 등을 활용한 집중홍보도 도움이 됐다.

이에 따라 집중 지급기간 마지막 날인 28일 기준 90%(8만3060명)라

는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완주군의 이 같은 빠른 지급은 각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급방식과 직원들의 현장 배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 오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황금연휴 산불예방 총력전... 특별대책 상황실 가동

완주군은 부처님오신 날, 어린이날 연휴에산불예방에 총력을 기한다.

28일 완주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휴일과 주말 동안 산불 비상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

영하고 불법소각 단속 및 산불방지 계도활동에 나선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120명을 주요 등산로 입구나 입산통제 구역, 풍·사실 묘지, 임도 주변 등 산불발생취약지역에 배치하고 마을 이장 등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

축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관내 아산에서 이뤄지는 불법 입산 물채취 방지를 위해서도 산림보호원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응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